

머리글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2020년 새해를 열며

새해입니다. 1월 1일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고, 이 새로운 일 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궁리하고, 결심이나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새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묵은해, 2019년 12월 31일의 다음 날인 것일 뿐인데, 우리가 이날을 새해로 부르자고 했기 때문에 새해가 되는 그것뿐 아닐까요? 태양력에 따라 일 년은 12개월로 하고 12월 말일 다음에는 해를 바꾸는 것을 정했는지언정, 한 해를 새롭게 하는 것은 어쩌면 인류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해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월 1일을 맞이했음에도, 그저 전날과 똑같이 맞이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생활하고 특별할 것 없이 지낸다면 그것을 새롭다고 할 수 없을 테니 말이지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새해가 되었으니 새로운 결심이나 다짐을 해봅시다’라기 보다는, 우리의 그러한 새로운 마음가짐이 ‘묵은 것을 새롭게 할 수 있구나’를 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는 이런 마음을 갖는 시간까지 새로움의 시작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나 묵상을 해봅니다. 예수님 탄생으로 교회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부터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 부활을 덜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사순 시기를 부활과 따로 떨어트리지 않는 것을 보아도 말입니다. 새로움은 묵은 것을 없애버려야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묵은 것을 잘 견디어내고 그 위에 싹터오는 우리의 진정성 어린 마음가짐, 인생에 대한 성실한 시각, 진솔한 태도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재판의 마무리를 기다리는 우리 미결수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출소를 손꼽아 바라보는 기결수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을 지나고 계시는 범죄 피해자 가족과 후원회원 신자분들, 이러한 것이 끝나야 새로워질 것 같을 수 있겠지만, 새로움은 이렇게 묵은 것이 자동으로 없어지고 나서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묵은 것 위에 묵은 것을 잘 견디어 낸, 그리고 묵은 것을 자양분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올해로 50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사랑과 자비의 베품의 시간이 어느덧 반백 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자양분이 되고 우리 위원회가 새롭게 마음으로 태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용자와 출소자, 범죄 피해자분들께 새로움을 선물해 주는 새로움의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11월 17일(일) 명동대성당 앞마당에서 제3회 가난한 이들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가련한 이들의 희망은 영원토록 헛되지 않으리라” (시편 9,19). 신앙이 특히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아로새겨져 불의와 고통과 불안한 삶 앞에서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 줄 수 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뜻에 따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12개 위원회의 부스가 설치되어, 신자들에게 위원회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곳은 날씨에 많은 분이 함께 나눌 수는 없었지만, 가난한 이들을 위해 하느님의 사업을 하는 사회사목국에 동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희망은행’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 업무협약식



12월 2일(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희망은행’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류함으로써 교육 자원 및 사회적 경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협약으로 인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12월 2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이상원 사도요한 부위원장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고삐를 이끌어 주시길 청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예수님과 함께라면 험하고 장애가 많은 곳도 건너가고 넘어가고 뺄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사에는 교정시설 음악 봉사자를 하고 계시는 도토리 팀과 대표봉사자들의 축가로 축일을 맞이한 이상원 사도요한 부위원장 신부와 강인석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소년원 담당)의 축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축일을 맞이한 신부님들의 영육간 건강을 기도드리며 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배동 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12월 7일(토)~8일(일) 방배동 성당에서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현대일 위원장 신부, 이상원 부위원장 신부, 김도훈 부위원장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며칠 전 부모가 구속되어 기존 집에서 쫓겨나 신림동 반지하에서 살게 된 자녀들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부모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그 형벌의 무게를 자녀라는 이유로 힘들게 지내야 하는가. 고3인 누나가 수능도 보지 못하고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해, 동생에게 바지가 얇다고 월급 타면 겨울 바지 먼저 사주겠다고 말했다”라며 “사회의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려는 이웃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후원회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방배동 성당 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너희를 보며 나를 보고

이용구 말가리다_분류심사원 봉사자

교리신학원 1학년 여름방학 즈음, ‘주님께서는 나를 어디에 쓰실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지?’와 같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확실한 것이 보여야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는 편이어서 나름 성소를 찾고 소임을 갖고 싶기도 했지요. 침묵 피정 마지막 날 받은 말씀이 ‘청소년 재소자’였습니다. ‘어떻게 든 당신의 뜻을 알게 해 주시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또렷하게 들리던 딱 여섯 글자, 놀랍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침 분류심사원과 고봉중학교에서 직분을 맡은 살레시오 수도회 수사님과 함께 신학원에 재학 중이었으니, 가야 하는 길이 술술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심하고 담당 신부님과 면담하여 시작한 지 만 2년 반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는 일이 바빠 뜻은 있었어도, 실행할 수 없던 일을 드디어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부풀어 올랐답니다.

얼마 동안은 분위기를 익히려고 신부님, 수사님, 봉사자들과 함께 이동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들곤 했지요. 나이는 많고, 아는 것은 없어서 주로 듣는 편이었는데, “지난번에 있던 누구누구...”란 부분에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소년이 재범인지 벌써 낮이 익을 정도라면 어찌 되는 건가, 아들 키우는 엄마로서 걱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청소년이 되었다는 것은 유아기부터 소년기를 지내면서 부모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성향이 이미 형성되었을 텐데 그것을 짧은 동안에 고칠 수 있다거나 변화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니, 오랜 시간을 두고 관심과 사랑을 쏟으며 자존감을 높여주고 독립심도 북돋아 주고 자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지속해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꾸준하고 질책하기 보다는 따뜻하게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쳐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년들을 만나다 보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못 하는 일도 있고, 찾아서 하고 싶는데 형편도 안 되고, 옆에서 유혹하는 일도 잦으니 그냥 놓아버리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뜻있는 멘토라도 결연해 주면 소년들이 습득하는 것도 다양해지고, 지식도 풍부해질 수 있어 정기적인 ‘특강’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면 시설 안에 있을 때가 시설 밖에 있을 때보다 더 안전한 것만 같아 안타깝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말씀’이라는 프로그램을 매월 넷째 주에 진행합니다. 약 십 명이 넘는 소년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외치게 하고, 써보게도 하고,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멀어 보이는 분이지만 우리 가슴에 자비롭게 살아계신 그분을 느끼게 하려고 힘주어 말합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하다 보면 어느새 이만치 전진해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처음엔 많은 것을 알려 주고 싶어 양적인 욕심이 앞섰는데, 천천히 가기로 마음을 바꾸니 저도 한결 진행하기에 수월하고 더 공부하며 연습하게 됩니다. 소년들이 틀린 답을 해주어도 신이 납니다. 잘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추고 나서 즐거워하는 소년들의 그 모습에 저도 신이 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소년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 부족하지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 아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레아라는 뜻은 중의적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어 레아는 대부분 ‘약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강하다’라는 뜻이 하나의 낱말에서 뚜렷이 드러나는데 바로 이 ‘레아’라는 이름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29장~30장에 나타나는 ‘레아’라는 이름은 ‘강한 여성’, ‘승리한 여성’이라는 뜻으로, 심지어 바알의 호칭에 대응하는 여성형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름의 의미는 대단하고 위대하지만, 사실 성서에서 보게 되는 레아의 모습과 그 삶은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레아와 라헬의 이름을 소개한 후, 곧바로 그들의 외모를 비교합니다. “레아의 눈은 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다웠다.”(창세 29,17) 외모 평가 이후에 이어지는 그의 삶 역시도 동생 라헬에게 밀리고, 소심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하는 까닭이 자신의 동생 라헬을 얻기 위한 것임을 몰랐을까요? 7년이 되던 날, 잔치 후에 아버지 라반이 야곱의 방에 들라고 하였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자신을 보고 실망스러워하는 야곱의 모습에 얼마나 모욕스럽고 부끄러웠을까요? 우리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아와 결혼 후 7년 후 라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레아와 초례주잔을 치른 뒤, 즉 일주일 후 야곱은 라헬과 지냅니다. 행복해야 할 신혼 기간 7일이 과연 레아에게 행복했을까요? 이 7일 후 ‘라헬을 더 사랑’(창세 29,30)하는 야곱을 보면서 레아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이라면, 주어진 운명을 원망하거나 분노와 상처로 화를 내거나 눈물로 세월을 보낼 것입니다. 혹은 라헬을 질투하면서 복수할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레아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레아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아 주셨구나”,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셋째아들 레위를 낳고서는 “나에게 매이겠지”라며 희망을 잃지 않았고, 넷째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하느님을 찬미합니다”라며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창세 29,31-35 참조) 레아의 몸종에게서 난 아이들의 이름도 레아의 신심을 볼 수 있습니다.

“행운, 다행”이라고 붙이고, 또 “나는 행복하다”라며 ‘행복’의 의미로 아세르라고 이름 짓습니다. 레아는 그 모욕과 상처의 시간을 원망과 증오하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기에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었고,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라헬 역시도 자식이 없기에 서글픔을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시샘과 질투에 가득 차 남편에게 원망하며 헐박합니다. “나도 아이를 갖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어요.”(창세 30,1) 그렇게 원망과 헐박, 증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도 선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헬의 몸종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내 권리를 되찾았다’, ‘언니와 죽도록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내 수치가 없어졌구나, 하나 더 보태어 주셨으면’,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 내 노력의 대가로 여깁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욕심을 부리고, 결국 고통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앞서서 레아라는 이름의 뜻은 강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레아가 강한 여성, 승리한 여성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를 다시금 묵상해봅니다. 선천적 외모가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조건의 불리함으로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을 얻지 못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 고통을 하느님께 나아가는 문으로 삼고 역경 속에서도 하느님과 함께했고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에 집착하기보다,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를 넘어서서 하느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여성으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헬은 길에서 아기를 낳다가 죽어서 길가에 묻히게 되지만(창세 35, 19-20), 레아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사악과 레베카가 묻힌 곳에 묻히고, 야곱 역시 레아 곁에 묻게 해달라고 합니다(창세 49,31). 성조의 합당한 부인의 위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가 그의 아들 유다의 자손입니다. 아 참, 이 유다의 뜻이 하느님을 찬송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께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수용자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후원회원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을 잃지 않는 시기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하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 찬송 속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창업준비센터

창업준비센터란? 창업준비센터는 핵심기술과 기술에 대한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은 가지고 있으나 자금, 사업장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개인/공동 작업장 등의 시설을 제공하며, 아울러 경영, 세무, 기술 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시설

출소자는 대개 직업을 갖기에 구체적인 경력이나 업무 경험도 부족하고 자격증이 있더라도 출소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소규모 창업을 하려고 해도 신용불량 등 사회적 제약이 많아 도움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결국 사회 복귀에 실패하여 좌절감에 빠져들어 재범행과 재수감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소자 가운데 25%가 3년 안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은 출소자와 살해 피해자 가족에게 창업과 자립 자금을 지원하여 꿈과 희망을 찾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2008년 6월 25일 설립되었고 이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가운데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의 이름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에서 따왔으며 출소한 지 3년 이내의 출소자에게 무담보로 최대 2,000만 원의 창업자금을 현재 210명에게 지원하여 그동안 17명이 완납하였지만, 대부분은 창업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창업자금을 지원한 지원자에 대한 실패 요인을 분석해 보면 창업 준비가 부족하고 창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점포를 계약하는 등의 원인 분

석으로 창업 실패를 줄이기 위해 창업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9년 12월 창업준비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출소자, 피해자 가족과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카리타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2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문인력, 공간,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및 자원연계 협력과 창업팀 발굴, 사업홍보, 창업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업무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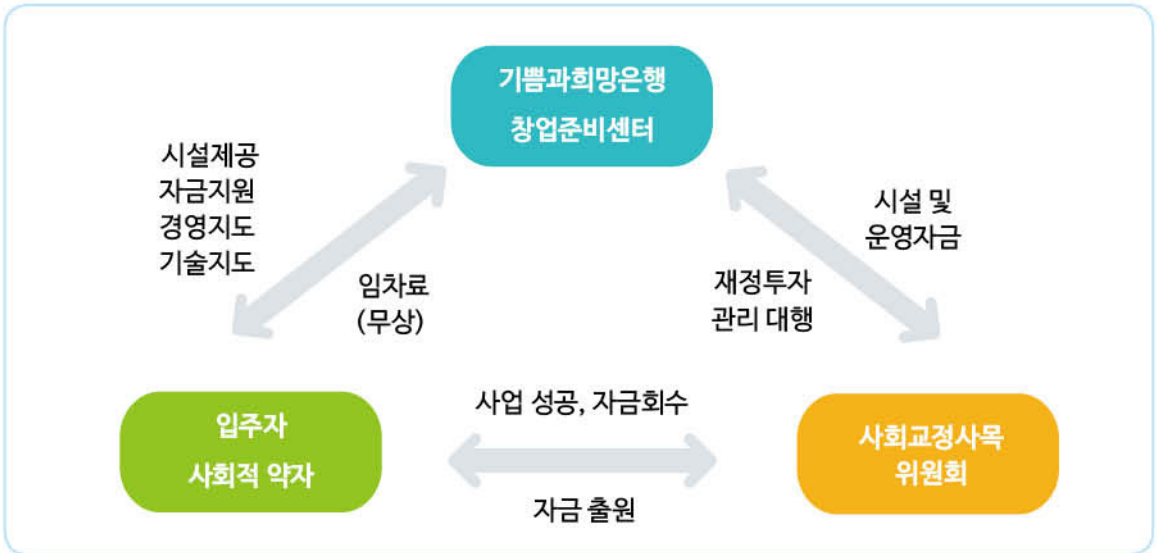
장소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별관 1층 83.62㎡(25.3평)로 개인 사무공간과 공동회의실, 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창업준비센터 입주자를 위해 보육 단계에 따른 지원 분야로 경영, 기술, 행정, 자금 등의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와 카리타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교회가 고민하고 지향해야 할 소명으로 힘없고 소외된 출소자, 피해자 가족,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빛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가 되기 위해 본연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창업자들에게는 성공의 발판이 되어 사회에 적응하고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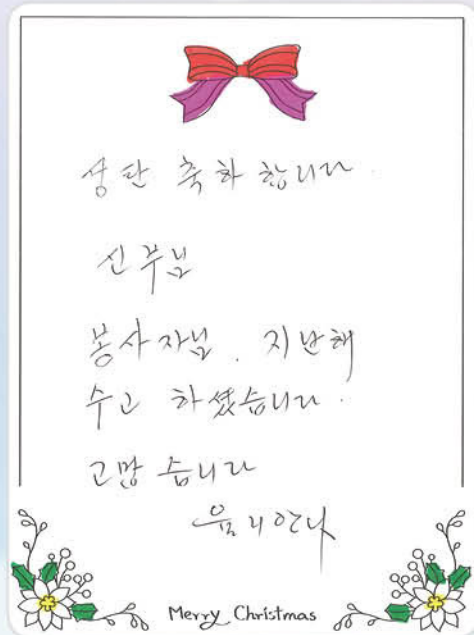
● 창업준비센터 운영 목표



● 창업준비센터 운영시스템의 기본 모형



담장 안 이야기



서울구치소 여사 자매님이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신부님, 봉사자님에게 감사의 성탄카드를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2020년 2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빛소식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 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2월 3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2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1/13~12/12)

11월~12월에는 방배동 성당 182명의 교우, 김상현 라우렌시오, 박성춘 도미니코 형제님과 오희숙 알로시아, 박미경 소화데레사 자매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노득로 바오로, 이용학 즈가리아, 신상철 알베르도 형제님, 정인경 크리스티나 자매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 알림

- 1월 6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1월 7일(화)~10일(금) 고봉중고등학교 겨울신앙학교 / 고봉중고등학교
- 1월 8일(수)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전체 봉사자 피정 / 가톨릭신학원
- 1월 9일(목)~11일(토)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워크숍 / 제주도
- 1월 15일(수)~17일(금)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 제8차 정기총회 / 성령선교수녀회 영성센터
- 1월 17일(금)~18일(금) 사회사목국 실무자 워크숍 / 부산
- 1월 22일(수) 창업준비센터 개소식 / 교정사목센터 별관 1층

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및 출력
2. 기부금영수증은 본 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있는 후원회원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오니 연말정산 기간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미리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초 일괄 우편 발송) 귀한 사랑을 나누어주신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 02)921-5094



후원 계좌번호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 25,36)